정보

개요
곡명: Piano Concerto, Op. 38 (피아노 협주곡, Op. 38)
작곡가: 새뮤얼 바버 (Samuel Barber, 1910–1981)
작곡 시기: 1960–1962년
초연: 1962년 9월 24일, 뉴욕 링컨 센터 필하모닉 홀 (당시 명칭). 존 브라우닝이 피아노를 맡고 에리히 라인스도르프가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장르: 독주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3악장 협주곡
출판: G. Schirmer, 1962년
소요 시간: 출판사 표기 약 26분

Wise Music Classical 작품 정보 · The Pulitzer Prizes 수상 기록 · Piano Concerto (Barber), Wikipedia

새뮤얼 바버의 Piano Concerto, Op. 38은 G. Schirmer 창립 100주년 위촉을 계기로 쓰인 후기 협주곡이다 . 빠르고 격정적인 Allegro appassionato, 노래하듯 이어지는 Canzone: Moderato, 5/8박의 질주를 품은 Allegro molto가 피아노의 독주적 광택과 관현악의 교향적 밀도를 세 방향으로 보여 준다. 바버의 서정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날카로운 리듬과 복잡한 반음계가 그 서정성을 감싸는 방식으로 확장된 작품이다.

위촉 ·작곡 ·초연

G. Schirmer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이 협주곡을 위촉했고, 바버는 처음부터 존 브라우닝을 독주자로
염두에 두었다. 브라우닝의 회고에 따르면 바버는 완성된 전곡을 한꺼번에 건네기보다 몇 쪽씩 보여 주었고, 브라우닝은 실제로 피아노에서 시험해 보며 피아노 파트의 손가락 감각과 연주 가능성을 함께 점검했다. 이는 브라우닝이 단순한 초연 담당자가 아니라 작곡 과정의 실질적인 협력자였다는 뜻이지만, 모든 음형이 그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작품은 1960–62년에 완성되었다 . 1962년 9월 24일 필하모닉 홀에서 열린 초연은 링컨 센터 개관 주간의 행사였으며 , 브라우닝 ·라인스도르프 ·보스턴 심포니의 조합으로 치러졌다. 당시의 공연 장소를 현재의 명칭인 데이비드 게펜 홀로 소급해 부르기보다는 , 초연 당시 명칭인 필하모닉 홀을 병기하는 편이 정확하다. 바버는 이 작품으로 1963년 음악 부문 퓰리처상을 받았고, 1964년에는 비평가 서클의 오케스트라 음악 부문 표창도 받았다. 퓰리처 페이지의 제목에 붙은 ‘No. 1’은 수상 페이지의 표기일 뿐, 작품의 통상적인 정식 명칭은 Piano Concerto, Op. 38이다.

시간과 편성

Wise Music은 연주 시간을 약 26분으로 제시한다. 녹음 카탈로그에는 약 25분에서 29분까지의 사례가 있어 템포와 녹음 편집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악장별 시간을 고정해 제시하기보다 전체 길이를 기준으로 듣는 것이 안전하다.

편성은 독주 피아노, 플루트 2와 피콜로, 오보에 2와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2와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2,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3, 팀파니와 타악기, 하프, 현악이다. 출판사의 shorthand인 2+pic.2+ca.2+bcl.2/4330/timp.perc/hp/str를 플루트 세 대로 세지 않고, 두 플루트 주자가 피콜로를
겸하는 자원으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 Daniels의 파트 안내에는 특정 구간에서 제 3바순을 선택적으로 보강할 수 있다는 표기가 있지만, 전체 의무 편성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세 악장의 설계

I. Allegro appassionato

월터 시먼스는 이 악장을 비교적 전통적인 소나타 알레그로의 틀로 듣는다. 피아노가 독백이나 레치타티보
같은 제스처로 문을 열면, 관현악이 넓은 음역의 주제로 응답하고 오보에의 서정적인 선율이 대비를 만든다. 발전부와 카덴차를 거쳐 재현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피아노의 큰 도약과 두꺼운 화음은 독주자의 힘을 과시하지만 , 오케스트라는 배경에 머물지 않고 독자적인 추진력을 유지한다.

이 악장의 긴장은 ‘낭만적 협주곡 대 현대적 협주곡 ’이라는 양자택일로 설명하기 어렵다. 바버는 협주곡의
익숙한 대화 구조 안에 불규칙한 리듬, 거친 음정 간격, 촘촘한 관현악 층을 넣었다. 브라우닝의 1995년 회고에 따르면 초연 리허설에서 첫 악장은 원래 피아니시모로 끝났고, 라인스도르프가 더 큰 종결을 제안하자 바버가 며칠 뒤 다른 결말을 제출했다. 이는 작곡가와 지휘자의 리허설 판단을 전하는 구술 자료이므로 , 수정 전후 악보의 세부를 확정하는 근거로 확대하지 않는다.

II. Canzone: Moderato

Canzone은 피아노가 긴 호흡의 선율을 노래하고, 목관과 현악이 그 주위를 투명하게 감싸는 느린 악장이다. 시먼스는 반복되는 오음음계적 선율과 하행 4도 성격의 연결, 변하는 오케스트라 질감을 이 악장의 청취
단서로 든다. 1악장의 격렬한 몸짓 뒤에 놓인 이 선율은 협주곡의 중심을 잠시 안쪽으로 돌리지만,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독주 피아노와 관현악이 가장 세밀하게 호흡을 맞추는 장면이다.

이 악장과 1959년 플루트 ·피아노를 위한 Elegy의 관계는 2차 자료에서 계보로 설명된다. 현재 G. Schirmer/Hal Leonard 카탈로그는 플루트 ·피아노판 Canzone (Elegy), Op. 38a를 협주곡 제 2악장에서
바버가 직접 전사한 판으로 소개한다. 따라서 ‘1959년 선율이 협주곡으로 확장되었다 ’는 설명과 ‘협주곡
악장을 플루트 ·피아노로 옮긴 출판판 ’이라는 방향을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 원고와 서신을 직접 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최초 제목이나 날짜를 단정할 필요는 없다.

III. Allegro molto

시먼스는 피날레를 5부분 론도와 5/8박의 토카타적 추진력으로 분석한다. 짧은 동기의 반복, 피아노의 빠른 음형, 금관과 타악기의 강한 악센트가 일정한 박의 안정감보다 계속 앞으로 밀리는 감각을 만든다. 1963년 휘트니 밸리엇의 후속 공연 비평도 이 악장에서 불꽃 같은 에너지를 들었지만, 그 글은 1962년 초연이 아니라 브라우닝 ·요제프 크립스 ·뉴욕 필하모닉의 1963년 공연을 다룬다.

브라우닝은 초연을 앞두고 일부 피아노 패시지가 지정 속도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바버에게 알렸고,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에게 악보를 보여 주어 같은 판단을 들었다고 회고했다. 시먼스와 2010년 Performance Today 회고는 제 3악장이 초연 약 2주 전까지 완성 과정에 있었다고 전한다. 이 일화는 초안 전체가 연주 불가능했다거나 호로비츠가 최종 악보를 직접 편집했다는 뜻이 아니다. 구체적인 수정 마디보다, 독주자의
손과 초연 일정이 피날레의 최종 형태에 영향을 준 협업의 조건을 보여 주는 자료로 읽는 편이 타당하다.

듣기와 연주 해석

이 협주곡에서 피아노를 관현악의 ‘차량 ’처럼 분리하면 1악장의 응답과 2악장의 긴 호흡이 모두 평면화된다 . 브라우닝은 브루스 더피와의 인터뷰에서 독주자가 오케스트라 총보를 충분히 알아야 협주곡을 실내악처럼
연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점에서는 1악장의 선언을 과도하게 앞세우기보다 관현악 주제의 방향을 함께 듣고, Canzone에서는 선율을 독점하기보다 목관과 현악의 호흡 속에 피아노를 놓게 된다. 피날레의 빠른 5/8 은 단순히 속도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불규칙한 악센트가 금관 ·타악기와 맞물리도록 음형의 끝을 정확히
건네는 문제다.

시먼스는 바버가 당시의 직렬적 음향을 흡수하면서도 실제 12음렬 작곡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작품을 ‘완전한 무조 협주곡 ’으로 부르기보다 , 조성적 흐름 속에 반음계와 현대적인 음향을 밀도 높게 섞은 후기 바버의 언어로 듣는 편이 좋다. 어느 한 해석을 정답으로 고정하기보다는 피아노의 선명한 타격, 선율의 성악성, 오케스트라의 색채 균형이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는 것이 유익하다.

주요 녹음

존 브라우닝 ·조지 셀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1964, Sony): 초연 독주자의 직접적인 경험과
셀의 정교한 앙상블을 들을 수 있는 초기 녹음이다. 카탈로그에는 세 악장 합계 약 25분으로

표시된다. Apple Music Classical 카탈로그
존 브라우닝 ·레너드 슬래트킨 ·세인트루이스 심포니 (1991, BMG): 브라우닝이 더 성숙한
시기에 남긴 재녹음이다 . 브라우닝은 두 녹음 모두 장점이 있으며 슬래트킨판에서 서정적인 부분이

더 잘 살아났다고 회고했다. 카탈로그 표기는 약 29분이다. Apple Music Classical 카탈로그
스티븐 프루츠먼 ·마린 올솝 ·로열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2003, Naxos): 26분 안팎의 현대적 녹음 사례로, Naxos 비평은 각 악장의 대조와 피날레의 추진력을 별도의 청취 포인트로
다룬다. 평론가의 선호를 보편적 서열로 바꾸기보다 , 초기 브라우닝 녹음과 피아노 음색 ·템포 ·

관현악의 전면성 차이를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Classical Net 비평

주요 자료

Wise Music Classical, Concerto for Piano

The Pulitzer Prizes, Samuel Barber

Walter Simmons, Concerto for Piano and Orchestra

Bruce Duffie, John Browning interview (1995)

Paul Sayegh, The Virginian-Pilot Browning interview (1996)

- YourClassical/Performance Today, A harrowing premiere
- Whitney Balliett, The New Yorker (1963)
- G. Schirmer/Hal Leonard, Canzone
- Daniels’ Orchestral Music Online
- Jonathan Woolf, MusicWeb □□ □□
- J.W. Pepper, Piano Concerto, Op. 38 Study Score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9:55 UTC by □□□
Updated 2026-10-04 10:09:55 UTC by □□□